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0.17)

1. 아베 총리의 한일 관계 발언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아베 총리는 16일 한일관계와 관련, “대화는 항상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며,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” 고 발언¹⁾
- 그러나 강제징용 관련하여 “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 상태(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)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지속하는 한국” 이라고 지적하였으며, 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” 라고 발언²⁾

2. 한일 총리회담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한일 총리 회담은 24일 개별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정중
- 일본 정부 관계자는 “먼저 양국 총리끼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” 발언³⁾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산케이(産経) 신문은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회담에서 악화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보도⁴⁾
- 시즈오카(静岡) 신문은 (일본 정부가) 한국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일파인 한국 정부 2인자와 한일간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지 않는 방향을 찾을 의향이라고 보도⁵⁾

1) 「首相、「対話、常に続ける」日韓関係で言及、衆院予算委。」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10. 17).

2) 「日韓首相会談：韓国首相と会談、安部首相が調整 関係改善図る」『毎日新聞』(2019. 10. 17).

3) 「日韓首相会談 23日か24日 最終調整 対立緩和糸口探る 即位礼外交」『静岡新聞』(2019. 10. 17).

4) 「日韓首相、24日会談で調整」『産経新聞』(2019. 10. 17).

5) 각주 3의 시즈오카 신문

3. 한일 외교국장 회담 내용 관련

□ [동향]⁶⁾

- 16일 개최된 한일 외교국장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,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, 양국 총리의 회담 일정, 양국 민간교류의 중요성, 장관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자간 의사소통 지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
-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의제로 거론되지 않음.

6) 「徴用工問題 平行線 局長協議 首相訪日 議題に」『静岡新聞』(2019. 10. 17).